

시대처럼 치유라는 단어가 시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환경 오염의 결과가 심각하다. 음식은 전부 유전자 변형,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다.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제3세계의 가난도 심각하지만 미국 안에서도 살기 힘들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거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 자살충동, 공황장애, 마약중독,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이런 젊은이들이 와서 답을 얻고, 치유되고 있다. 만일 내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나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가? 답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체험해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중인으로 서라는 것이다. 본문에 적어도 세가지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영적 치유), 네가 범사에 잘 되고(마음 치유, 삶의 치유, 경제치유), 강건해지는(육신치유)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라는 것이다. 그것이 실현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많은 단체들이 앞장 서서 이것을 하고 있다. 환경 문제를 거론하고, 치유되는 음식, 깊은 호흡 등 기본적으로는 맞다. 문제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하는 명상운동, 기운동, 영적 체험들이 결국은 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지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스티브 잡스)

1.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통을 겪든지 제일 시급한 치유가 뭐냐? 근본 문제에 대한 치유다(근본 치유)

오직 성경만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 근본의 회복과 치유다.

1) 처음 인간의 근본은 완전했던 것이다(창1:26-28).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다(26절).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다(28절). 어느 정도로 완전하고 축복된 존재였는가?(28절)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정복, 만물을 다스리던 존재였다. 이것을 다 잊어버린 사건이 창3장(원죄의 실패), 창6장(네피림의 실패), 창11장(바벨탑의 실패)에 기록되었다.

2) 여기서 빠져나와 본래의 축복을 회복하고 치유 받으라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원죄의 저주, 지금도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권세, 이 땅에서 시작되어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 권세에서 해방 받으라는 것이다. 스스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한다. 여기서 빠져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근본 치유”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도 한다.

3) 그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제사장, 왕,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다.

그 분이 내 주인이 되는 순간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다. 내 열심, 노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면서 그 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씩 다 살리는 것이다.

2. 그러면 구원 받고, 근본 치유를 받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오래된 내 인생의 틀을 바꾸어 실제적인 내 삶을 치유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회복하라는 것이다.

1) 영적 치유다.

- ① 하나님을 만났고, 해방 받았고, 성령이 함께 한 자가 되어 놓고도 늘 현실 문제에 부딪힌다.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중에는 무능하고 실패하는 신자가 된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린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부추긴다. 계속 속고,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2) 원인이 무엇일까? 오랜 세월의 마음의 상처, 습관, 체질 때문이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발전한다.

특히 어린 시절, 과거의 마음의 상처들이 주 요인이 될 수 있다(사61:1)

여러 가지 환경, 현실(인간관계의 갈등,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미래의 불확실함)이 요인이 될 수 있다.
걱정, 불안, 염려가 계속된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인간 관계의 불신을 만들고, 다툼, 질병을 만든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다. 곁으로는 단순한 상처, 갈등, 현실 문제 같은데, 그 문제가 계속 될 수 밖에 없도록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요8:44 “거짓말하는 자”, 요10:10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앱6:11 “세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궤계를 쓰는 자”). 스스로 속도록 사건을 일으킨다.

3) 구원받은 자는 두가지를 체험하면서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때 내 모든 부분에 영적 치유가 이루어진다.

먼저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충만 받으라는 것이다(행1:8, 앱5:18)
한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다. 계속, 24시, 평생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계속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녹취하고, 반드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 영적인 힘을 느낄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의 영들과 싸우라는 것이다(눅10:19, 약4:7)
그 때에 환경, 현실, 나 자신의 상처, 약점, 한계를 뛰어넘고, 계속 되는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는 것이다.
힘이 없고, 영적 대적을 모르고, 날 지키는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 문제이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속고, 마귀 기뻐하는 일에 심부름까지 한다. 구원받아 놓고도 인생이 고통이 되는 것이다.

2) 마음과 생각 치유다. 중요한 키는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 된다(갈5:22-23 성령 충만의 열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 훈련이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한다.

- ① 어려움이 올 때 불안하고 두려운 부정적인 생각 대신 임마누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날 붙잡으시고, 이것도 축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 ② 문제와 갈등이 올 때 불평, 원망의 생각을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생각을 바꾸라(렘33:3, 롬8:28)
때로는 내가 원하는 문을 닫아 놓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문을 여는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 ③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잡고 감사한 생각, 미래의 축복된 생각을 하라(단6:10, 빌4:6-7, 앱3:20)
렘넌트 7명을 비롯하여 성경에 너무 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다(히12:1)

④ 외로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다른 것 막아놓고 당신과 깊은 시간을 가져 보자는 사랑의 초청이다.

렘넌트 7명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시간들이 있었다. 그것이 영적 씨앗으로 가는 시간들이었다.

3) 이 축복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육신 치유다.

영적 치유, 마음 생각 치유만 체험해도 많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일단 얼굴 빛이 달라진다.

① 그러면서 조금만 음식 조심해라. 너무 많이 먹고, 틀린 것을 먹어서 탈이다.

이것도 새 틀(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짜고, 맵고, 뒤진 것만 피해도 된다. 합성음료보다는 깨끗한 물을 먹으라.

② 우리 몸에 절대 필요한 것이 산소다(소화를 시킬 때도, 뇌에도, 피로를 이길 때에도).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훈련하고, 걷거나 뛰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의 몸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천명, 소명, 사명 때문에 치유되어야 한다.

결론- 문제, 어려움, 질병이 있다면 기회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삶을 치유 받아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더 중요하게 쓰임 받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치유될 것이다. 참된 치유의 축복, 복음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나 자신이 치유 받고, 우리 교회가 계속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한다.